

## “차세대 무인전투기,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게”

**원광대학교 김인주·송하영 학생  
공군사관학교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공학과 2학년 김인주(사진 왼쪽), 송하영(사진)씨가 최근 공군사관학교에서 주관한 제2회 공군사관학교 미래 항공 우주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공군사관학교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논문 중 스마트 공군 전투력 향상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제시한 기술 논문을 선정해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원광대 김인주, 송하영씨는 ‘파일럿과 일격 무인기 간 정보 및 제어 상호작용을 위한 Digital Twin Cockpit’ 연구논문을 통해 차세대 무인 전투

기에 디지털콘텐츠 혼합현실(MR)기술을 접목한 무인 전투기의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은 조동식(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지도로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Digital Twin 개념을 확대 적용해 차세대 무인 전투기에 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같은 신기술들을 접목시킨 무인 전투기 인터페이스는 전례가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심사위원 및 공군사관학교 생도들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함께 호평을 받았다. 이현창 교수는 “논문상을 받은 학생들은 학부 2학년생이지만,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전시회 및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실로 생각된다”며, “이번 수상이 향후 개인의 발전과 학과 및 학교를 빛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진안협, 국민화합전진대회 준비 박차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회장 최경호)는 10월 4일 진안군문예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국민화합전진대회 영·호남 교류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호남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지역분열과 갈등해소, 국민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19회째를 맞이해 전북 진안군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는 2,000여명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28일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진안에서 개최되는 만큼 품질 좋은 진안홍삼을 널리 알리고 지역 대표 축제인 진안홍삼축제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경호 회장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이번 화합전진대회를 통해 한 마음·한 뜻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진안고원의 아름다움과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남원시 주천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남원시 주천면(면장 양순철)은 지난 28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분에게 수여하는 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각 분야별 수상자는 애향장에 김종식(62)씨, 공익장에 소형수(51)씨, 문화체육장에 이정구(52)씨, 행정공로장에 윤영복(66)씨, 산업근로장에 김영광(47)씨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주천면은 기업유치와 주민소득증대사업, 관광객 편의사업 추진 등 주천면 발전에 기여해 온 조점현 국립공원구룡봉소장과 김종록(前 주천면장), 노인환(前 주천면장)씨를 감사패 수상자로 선정했고, 김정호(前발전재협의회장)과 이일우 주천면사무소 산업담당, 양숙희 남원농협 주천지점 부지점장을 공로패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주천면은 오는 10월 3일 제11회 주천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들에게 주천면민의 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 '지도담아들레' 프로그램 성료

원광대학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최근 익산 시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버스타담 프로그램 '지도담아들레'를 진행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담아들레' 프로그램에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익산에서 진행된 '인생인문학-삶 속에서 나를 찾다' 인문강좌를 수강한 시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3주 동안 진행된 '인생인문학-삶 속에서 나를 찾다' 인문강좌는 박재철 동화작가 및 한국화가의 '그림 속에 삶을 담다'를 시작으로 원광대 김정배 교수의 '포스트폴리오 생활자와 자기경영'에 이르기까지 총 4개 강좌를 통해 익산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능력 향상과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인문강좌와 연계한 '지도담아들레'는 여우숲학교 감동규 교장의 특강과 여우숲 해설 체험으로 인생의 가치를 되짚는 시간을 제공했으며, 시민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한편,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는 가깝 이병기 선생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직접 시조를 창작해보는 인문체험, '가람시조교실'을 10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원광대 송산기념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정읍 6·25 고부 피학살도 위령제 실시

정읍시는 지난 28일 고부면 입석리 6.25 피학살 묘역(이하 고부 피학살묘)에서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영혼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와 참배행사를 가졌다. 고부 피학살묘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군경, 종교인 등 반공인사 1백50명을 이곳 폐탄광에서 무자비하게 학살 또는 생매장 했던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정읍시의회 최낙산 의장, 보훈단체장과 기관단체장과 유족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부면 두순산 소재 사찰인 유선사 주관으로 제(祭)를 올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명복을 빌었다. /정읍=김태환 기자



<b>전주매일</b>		www.jimaeil.com	200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도순홍)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68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64
영지지사 010-9845-9355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02-389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순창 구림면, 사랑의 줌どり 나눔행사 추진

구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상수)에서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모아 사랑의 줌どり 나눔행사를 추진한다. 사랑의 줌どり함을 구림면사무소에 상시 비치해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줌どり 향이리에 쌀, 고추, 고구마 등 농산물 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줌どり 농산물은 구림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배부할 계획이다. 권상수 구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사랑의 줌どり 행사는 나눔의 실천이며, 앞으로 구림면 공동체가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출발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고품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의료봉사를 추진했으며 하반기는 줌どり 행사에 이어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는 짜장면데이와 김장나눔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원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